

한산중학교, 발명활동 촉진 강연회 열다

학생들에게 좀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한산중학교가 지난달 14일 '발명활동 촉진 강연회'를 열었다.

특허청이 주관하여 열리는 발명활동 촉진 강연회는 전국 각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발명활동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타 지역 강사들의 강의를 통하여 발명이 생활 속에서 좀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한산중학교에서는 강원도 태백시에 위치한 상장중학교 김창연 교장을 초빙하여 발명의 기초지식에 관한 재미있는 강의와 함께 김창연 교장의 지도 아래 만들어진 발명품 이야기 등 발명활동과 관련된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모인 학생들은 생활 속의 다양한 물건들이 작은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새로운 발명품이 될 수 있다는 강의 내용을 들으며 '나도 발명가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 지난달 4일 한산중학교에서 열린 발명활동 촉진 강연회. 강원도 태백 상장중학교 김창연 교장의 쉽고 재미난 강의가 진행되었다.

한산중학교 주영기 교장은 '학교는 학과과목을 가르치는 이전에 학생들의 인성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며 '학생들의 재능을 살리고, 인성을 키우기 위해서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아그라 껌' 미국 회사서 특허

껌으로 씹는 비아그라(발기부전 치료제)가 만들어졌다. 껌 제조회사인 리글리사는 최근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비아그라 성분인 실데나필 구연산염이 들어간 껌의 특허를 받았다고 MSNBC 방송이 지난달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리글리사는 측은 '성관계 30분 전 껌을 2분간 씹으면 두려움 없이 침대로 갈 수 있다'면서 '복용 1시간이 지나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알약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다'고 밝혔다. 또한 '비아그라와 달리 이 껌은 위장이 약한 환자들에게도 부담이 없다'며 '발기부전 환자들에겐 손쉬운 치료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이 껌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아그라 특허권 보유사와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으면 특허 유효기간인 2011년까지 비아그라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의약품으로 분류될 이 껌은 앞으로 비아그라처럼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 절차 후 상품화되어도 의사의 처방하에 환자들에게 판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옥수수 줄기로 종이 만든다

옥수수대를 원료로 펄프와 종이를 생산하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이 기술은 최근 미국 농무부 산하 임산물연구소(FPL)의 과일렛플랜트에서 검증을 거쳐 한국과 미국에 특허로 출원됐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김상원 CP&P 사장은 '지난 4년 동안 연구와 실험을 거쳐 옥수수대를 이용한 펄프와 제지를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 와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위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 위스콘신주에 있는 FPL에서 방문연구를 마친 원종명 교수는 옥수수대로 만든 종이와 활엽 수목재로 만든 제지와 품질이 비슷한 것으로 확인돼 PCT(특허협력조약)에 특허를 출원했으며 이어 미국학회에서 이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이번 기술발표를 계기로 국내 대기업에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며, 주 시장 타깃은 옥수수를 대량으로 재배하는 미국과 중국이 될 것이다.

고교생들이 무공해 자동차 발명

한번 충전에 50km 주행 가능, 최대 속력은 100km/h까지 낼 수 있다

고교생들이 인력과 전기로 달리는 '무공해' 자동차를 만들었다. 꼬박 3년이 걸렸지만 설계에서 제작까지 모두 학생들 스스로 해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공해 없는 새로운 교통수단 개발에 도전한 10대들, 즉 현대고등학교 동아리 '자동차·항공기 연구반(FETS / 땅에서 하늘까지)'이 그 주인공이다.

'시행착오가 많았죠. 설계도를 수십 번 고쳐야 했고, 강철 파이프를 용접했다 떼어내길 수차례 반복하는 등 힘들었습니다.' 무공해 비행기를 실용화하고 싶다는 동아리 회장 남재희(2년)군의 말이다.

공해도 없고 기름도 필요없다는 의미에서 'NO'라고 이름 붙여진 'e(전기) 인력 자동차'는 제법 날렵해 보인다. 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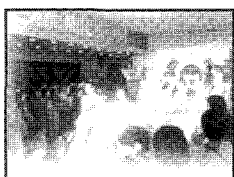
218cm, 폭 90cm, 높이 86cm, 무게 35kg의 무공해 자동차는 버려진 자전거 20대를 주워 모아 자르고 붙여 재활용했고 의자도 바느질해서 직접 만들었다. 한번 충전하면 50km 주행이 가능하고 속력은 최대 100km/h까지 낼 수 있다. 일반 자동차처럼 키를 꽂으면 전원이 들어오고 간단한 핸들 조작으로 바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13년째 동아리를 지도하고 있는 구기복(54·기술) 교사는 '자동차가 엔진의 힘으로 달리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이들은 이 발명품이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라고 우기기도 하지만, 기존 자동차의 단점을 개선한 새로운 교통수단임에 틀림없다'면서 '최초의 시도는 언제나 고정관념을 깨는 도전과 실험 속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기업정신 Professional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전시회 개최 Impressive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고객에게 감동 Responsible 책임감과 신뢰를 원칙으로 한 고객만족 추구 Creative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적 사고로 업무수행

“격조 높은 전시회를 열어 드립니다”

www.orientfair.co.kr



주요업무

- 전시개발 및 분석
- 광고 및 홍보
- 전시기획 및 운영
- 이벤트기획 및 운영
- 해외전시 프로모션



주요 전시회

- 국제주차장 및 주차설비 산업전
- MBC웨딩페어(춘·추계)
- 정부조달우수제품 및 디자인전
- 여성기업우수제품 및 발명품 박람회
- 여성디자이너 귀금속 명품전
- 서울 국제 영·유아상품 및 정보 박람회

(주)동양전람
ORIENT FAIR CO., LT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빌딩 402호
TEL (02) 780-0843 FAX (02) 780-0845